

보 도 자 료

항공업 재편은 모두가 공감하는 공정한 절차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1. KCGI는 산업은행의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국책은행으로서 어떠한 결정도 존중할 것입니다.
2. 그러나, KCGI는 항공업 재편은 a) 관련된 회사 주주와 임직원 등 이해관계자, b) 국토부, 금융위, 공정위 등 관계 당국, c) 납세자이자 소비자인 국민, d) 항공업 내외부 전문가의 입장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고려한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 진행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3. 그렇지 않아도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아니한 채 추진하기로 이미 결정되어 버린 항공업 재편과 관련하여 많은 우려와 걱정이 있는 가운데, 얼마전까지도 아시아나항공의 정상화를 장담하던 국책은행은 가처분이 인용되면 딜이 무산되고 딜이 무산되면 아시아나항공의 파산을 피할 수 없다고 갑자기 주장하면서 법원을 겁박하고 있음을 개탄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4. KCGI로서는 줄속으로 추진된 한진칼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의 위법성에 관한 가처분 신청사건에서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겸허하게 기다리고 있으며, 향후 항공업 재편을 구체적으로 진행함에 있어서 지금이라도 필요한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차근차근 밟아 나갈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본 자료는 이 웹사이트 방문자에게 참고가 될 수 있는 각종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제시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기술적 오류나 인쇄상의 오류가 있을 수 있고 정보 제공 후 상황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그 정확성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당사는 본 자료의 정확도, 완성도, 신뢰도에 대하여 보장하지 않으며, 본 자료에서 최신의 내용을 유지할 의무는 부담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 자료에 나타난 정보를 귀하의 이익과 관련된 결정상의 참고자료로 의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당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에서 제공된 정보와 관련된 모든 손실, 손해(간접, 특별손해를 포함하되 이에 제한되지 않습니다) 또는 비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본 자료는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자료의 지적 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동의 없이 복제, 배포, 전송, 변형, 대여 등은 할 수 없습니다.